

17세기 후반 태국의 무슬림 사회와 마카사르인 폭동에 관한 연구*

조 흥 국**

I. 서론

태국의 역사에서 나라이(Narai) 왕의 치세(1656-1688)는 아유타야(Ayutthaya) 왕조(1361-1767)의 황금기로 평가된다. 이 측면은 그 재위 기간의 풍부한 문학작품 생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Wannao Yuden 1984: 122),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발전에도 관계된다. 국내 정치적으로 나라이 왕의 치세는 강력한 왕권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아유타야 왕조의 역사에서 왕자들과 귀족관료 세력이 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나라이 왕 시대에는 그러한 세력이 왕권의 확고한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왕이 왕국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중병에 걸린 재위 말기에 되어서야 관료사회에 대한 그의 단단한 고삐가 느슨해졌으며, 그에 따라 그의 신하 중 한 명인 팻타라차(Phettharacha)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나라이의 그러한 강한 왕권은 32년의 그의 재위 기간 태국 사회가 국내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seathai@pusan.ac.kr

나라이 왕의 정부는 국내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해외무역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나라이 왕 시대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과 행해진 태국의 해외무역은 아유타야 왕조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Smith 1977: 73). 짜오프라야 강을 통해 남중국해와 연결되는 수도 아유타야와 오늘날에는 미얀마 영토의 일부이지만 당시에는 태국에 속해 있었던 말레이반도 서안(西岸)의 메르구이(Mergui) 즉 므예익(Myeik)은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들이었다(Spinks 1959: 277-279; Suwannthat-Pian Kobkua 1988: 15).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해 있는 태국의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나라이 왕의 적극적인 해외무역 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나라로부터 외교 사신과 상인들을 당시 대외적으로 ‘시암(Siam)’이란 국명으로 알려져 있었던 태국으로 끌어들였다.

나라이 왕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계속 발전시켰는데, 그 조공관계는 시암의 무역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것이었다(Sarasin Viraphol 1977: 28ff). 그는 일본과의 무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郡司喜一 1938: 65-71), 또한 수마트라 섬의 아체(Acheh)와 잠비(Jambi), 인도의 골콘다(Golconda) 등 다양한 술탄 왕국들이 보낸 사신을 영접했고, 페르시아와는 사신을 교환했다(Anderson 1981: 233; Penth 1969: 355-358). 그러나 나라이 왕 시대의 특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그의 재위 기간 시암이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다양하고 긴밀한 유럽과의 접촉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16세기에 아시아 무역을 개척한 포르투갈과 스페인과는 물론, 17세기에 동아시아에서 무역적 이해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활발한 교류가 전개되었다.

유럽 국가들과의 상업적 관계로부터 외교적 접촉이 진척되었으며, 그 중 프랑스와의 외교관계가 가장 활발하고 긴밀했다. 특히

1680년대 시암과 프랑스 간에는 사신 교환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 양국 간 접촉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의 상업적 이해관계는 전통적으로 불교도인 시암의 국왕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는 종교적 동기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시암에서의 자국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심지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시암과 프랑스 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나라이 왕의 고문으로 당시 시암을 방문한 유럽인들에게는 시암 정부의 ‘대신(minister)’으로 알려져 있던 그리스 출신 콘스탄틴 파울콘(Constantine Phaulkon)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시도는 1688년 시암에서 발생한 소위 ‘궁정혁명(Palace Revolution)’으로 실패로 돌아갔다.¹⁾

이 연구의 목적은 나라이 왕 재위 기간 시암과 프랑스 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시암에서 발생한 마카사르(Makassar)인들의 폭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680년대 시암 정부의 친유럽적 특히 친프랑스적인 정책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마카사르인 폭동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시암 사회 내의 무슬림들의 활동과 위상을 조사하고 나라이 정부의 프랑스 정책과 프랑스 정부의 시암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에 대해 솔라웨이 섬 출신의 마카사르인 무슬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 시암 정부와 시암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룰 것이다. 마카사르인 폭동은 나라이 왕 재위 시대 태국의 활발한 대외 접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태국의 국가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루는 연구가 마이클 스미시즈(Smithies 2002)의 것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스미시즈의 연구도 사실 몇몇 당대 유럽인들의 기록을 소개하고 비교하는 수준의 것으로, 본격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마카사르인들이 고

1) 1688년 궁정혁명에 대해서는 Cho Hung-guk(2012) 참고.

향인 술라웨시를 떠나 대륙 동남아시아의 시암까지 와서 활동하고 나아가 쿠데타를 통해 불교국가인 시암을 이슬람 왕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서 당시 도서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의 초국경적 및 초국가적 활동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당시 시암 왕국이 중국인들과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럽인들과 도서 동남아시아 세계 및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까지 수용하는 대외개방적인 사회였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셋째, 당시 해외무역과 경제적 번영을 중시하는 시암 사회가 이것을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에 얼마나 민감한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넷째, 연구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시암 사회가 앞의 두 번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왕국의 문화적 및 정치적 근간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유럽인들과 이슬람적인 무슬림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II. 아유타야 시대 태국의 무슬림 사회

시암은 아유타야 왕조의 초기부터 인도양의 연안국들 특히 무슬림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비(Harvey 1967: 112)에 의하면, 말레이반도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미얀마 영토에 속해 있는 떠닌따이(Tanintharyi)²⁾는 1373년에 아유타야 왕국에 의해 건설된 항구도시였다. 아랍인 항해가인 압두르 라작(Abdur-Razzāk)은 15세기 전반에 아유타야 왕국의 상인들이 떠닌따이를 인도양 무역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삼아 페르시아만 연안까지 진출하여 무역을 했다고 말한다(Campos 1940: 2).

중국의 『明史』는 시암이 당시 남중국해와 인도양 간 가장 중요한

2) 영어권에서는 수 세기 전부터 ‘Tenasserim’으로 표기되고 있음.

중계무역 항구로서 무슬림 상인들에게 있어서 동남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던 플라카(Malacca)를 15세기 초에 공격하여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明史 1977: 8398-8399). 아유타야 왕실연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시암은 1488년에 떠닌따이의 북쪽 안다만해 연안에 있는 떠웨이(Dawei)³⁾를 정복했다(Prasoet Aksonnit 1961: 6, 10). 중국과 태국의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시암이 15세기 내내 무슬림 시장과의 무역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암시한다. 시암은 특히 인도양 무역을 위해 떠닌따이와 떠웨이를 중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유타야 왕국이 1560년대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미안따에 의해 점령된 이 두 항구를 1593년에 재정복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Phonnarat 1971: 207-208).

아유타야 왕국의 인도양 무역은 대부분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상인들은 시암 정부의 인도양 무역의 대행자로 활약했으며, 그 역할은 17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증대되었다(Dunn 1984: 118-121; Smith 1977: 56-62, 85-87). 1633년부터 1642년까지 시암에서 활동한 네덜란드인 판 플릿에 따르면, 라마티보디(Ramathibodi) 2세 시대(1491-1529) 아유타야에는 코로만델(Coromandel) 연안에서 온 인도 무슬림 상인들이 들어와 인도 옷을 팔았다. 라마티보디 2세는 왕국의 무역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 상인들을 시암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심지어 외국인들의 시암에서의 무역활동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Van Vliet 1975: 68-69).

시암의 무슬림 사회의 형성과 발전은 아유타야 왕국의 초기부터 추구된 시암의 적극적인 대외무역 특히 무슬림 왕국 및 상인들과의 활발한 상업적 접촉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암의 무슬림들은 터키를 포함한 중동의 여러 나라, 페르시아, 인도, 말레이반도,

3) 영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Tavoy'로 표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에서 왔다. 포르투갈인 여행가 페르낭 멘디스 핀투에 의하면, 이미 16세기 중엽에 여러 명의 터키인들이 아유타야 왕국의 장교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은 800명으로 구성된 수군(水軍)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또 16세기 중엽에 벌어졌던 시암과 미얀마 간의 전쟁에서 3,000명의 자와(Java) 병사들이 시암을 위해 싸울 정도로 아유타야에는 상당한 숫자의 무슬림들이 활동하고 있었다(Pinto 1987: 279-280, 338).

무슬림들은 시암의 관료사회에까지 진출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암의 인도양 무역 내지는 무슬림 왕국들과의 무역에서 무슬림 세계의 언어들과 문화 그리고 시장을 보다 잘 아는 무슬림들이 아유타야 왕국의 인도양 무역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에 기용되었기 때문이었다. 17세기 시암의 관료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강력한 무슬림 집단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다. 17세기 초에 페르시아인 형제가 아유타야에 왔는데, 그 중 형인 셰이크 아흐맛(Sheikh Ahmad)은 무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1610년대에 왕국의 대외 외교 및 통상을 관할하는 끄롬 프라클랑(Krom Phra Khleng)의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1620년대에는 왕국의 북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끄롬 마합타이(Krom Mahatthai)의 장관이 되었다. 당시 시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행정부처의 장관직은 뿌라삿통(Prasat Thong, 재위 1629-1656)의 등위 후 셰이크 아흐맛의 아들인 촌(Chuen)이 물려받아, 이 왕의 재위 말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Prayut Sitthiphon 1962: 232-234; Chomrom Saisakun Bunnak 1999: 22-25; Wyatt 1974: 156).

관료사회에서의 페르시아인들의 강한 위상은 나라이 왕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1686년 초에 시암을 방문한 페르시아 왕국의 사절단의 이븐 무함마드 이브라힘(ibn Muhammad Ibrahim)은 “이 왕의 통치 초기부터 최근까지 나라의 모든 중요한 사업과 일들은 페르시아인들의 손에 놓여 있었다”라고 썼다(Ibrahim 1972: 58). 그들 중에서도

특히 나라이 왕의 등위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압두르 라작(Abdu'r Razzāq)은 정권 초기에 국왕의 총애를 받는 고문이었으며(Ibrahim 1972: 95-97; Dhiravat na Pombejra 1984: 275-276), 아카 무함마드(Aqa Mahammad)라는 다른 페르시아인은 1670년대에 당시 시암에 살던 유럽인들 사이에 국왕의 최고신임을 받는 관료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대신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Records 1916: 121, 143; Aubin 1980: 104 n.62, 107).

이미 1660년대 중엽에 아유타야의 네덜란드인들에게 “무슬림들의 지도자”로 비친 아카 무함마드는 시암의 무슬림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Dhiravat na Pombejra 1984: 301). 영국동인도회사(EIC: East India Company)의 조지 화이트(George White)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무슬림들 특히 페르시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거래규모가 크고 활발한 시암의 인도양 무역을 독차지하도록 도왔다(Records 1916: 208-209). 그뿐만 아니라 아유타야에서 인도양 연안까지의 길목에 있는 방콕, 수판부리(Suphanburi), 팻차부리(Phetchaburi), 므예익 그리고 떠닌파이 등 주요 도시들의 태수는 모두 무슬림이었고, 떠닌파이에서 벵골만까지 가는 시암 왕실무역선의 선장들도 모두 무슬림이었는데, 이 역시 조정에서의 그의 영향력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Ibrahim 1972: 46, 50; Tachard 1688: 139-140; Forbin 1730: 99; Bouvet 1963: 92).

아카 무함마드는 국고의 남용과 사리사욕의 추구로 국왕의 징벌을 받아 1679년에 사망했으며, 그 이후 무슬림들 특히 페르시아 사람들은 시암에서 세력이 약화되었다(Ibrahim 1972: 58, 102-103).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2년에 작성된 EIC의 한 문서와 1680년대 중엽 프랑스 신부인 니콜라 제르베의 여행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Records 1918: 86; Gervaise 1688: 321),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사신 라 루베르가 1680년대 말 시암의 관료사회에서 외국인들인 중 무슬림 그룹이 가장 잘 포진되어 있으며 기반이 가장 단단하다고 관찰한 것처럼(La Loubère 1987: 367), 무슬림들은 1680년대에 시암에서 여전히 강력한 권력집단 중 하나였다.

이 글의 연구대상인 마카사르인⁴⁾들이 아유타야에 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네덜란드동인도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무역 독점을 위한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VOC는 1641년에 플라카를 점령한 후 플라카해협에서 말루쿠(Maluku) 제도까지의 무역을 독점하고 특히 말루쿠 지역의 정향(丁香, clove)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려고 했다. 네덜란드인들의 그러한 시도에 반발하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의 무슬림 상인들은 술라웨시 섬 서남부에 위치한 마카사르 왕국으로 몰려들었다. 이로써 마카사르가 VOC에 저항하는 무슬림 상인들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그 중심에 마카사르 왕국의 하사누딘(Hasanuddin) 술탄(재위 1653-1669)이 있었다. 마카사르 왕국은 그러나 1666-1667년 VOC의 공격에 굴복하여 조약을 체결했으며 1669년에는 VOC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Reid 1993: 278-280).

1771년 파리에서 출판된 프랑수아 앙리 튀르팽(Françoise Henri Turpin)의 시암 왕국의 역사책에 따르면,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폐위당한 마카사르 왕국의 술탄의 한 왕자는 자신의 무리와 함께 시암에 와서 망명을 요청했다(Turpin 1908: 53). 나라이 왕은 그 요청을 수락하여 약 300명에 달하는 마카사르인들에게 아유타야의 말레이인 캠프와 포르투갈인 캠프의 강 건너편에 있는 한 지역을 정착촌으로

4) ‘마카사르인’은 적어도 17세기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복합적인 종족 개념으로 이해된다. 16세기 중엽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마카사르인’은 17세기에는 술라웨시 서남부 지역의 토착인들, 자와(Java)인, 말레이인, 미낭카바우(Minangkabau)인, 조호르(Johor)인, 칼리만탄 섬 출신 사람들, 인도계 무슬림 등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Sutherland(2001: 397-401) 참조.

지정해주었다(Forbin 1730: 154). 마카사르인들이 하필이면 시암을 망명지로 택한 것이나 나라이 왕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당시 시암의 이슬람권 시장과의 활발한 무역관계와 시암 사회에서의 무슬림들의 왕성한 활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II. 1686년 마카사르인 폭동

1. 1680년대 시암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1680년대 중엽 시암 정부는 다양한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 사신 교환을 통해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외교관계에 수반된 대외무역을 통한 국고 수입의 증대에 대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Smith 1977: 74 ff), 나라이 왕의 유럽에 대한 호기심과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그의 의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cords 1916: 129 ff.). 시암 정부가 그러한 대외적 접촉 중 가장 중시한 것은 프랑스의 루이(Louis) 14세 궁정과 의 관계였다. 그 관계의 발전에서 나라이 왕의 고문인 파울콘의 프랑스에 대한 관심과 친프랑스 정책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시암 정부의 프랑스에 대한 외교관계를 총괄한 파울콘은 심지어 1685년 말에 아유타야에 도착한 프랑스 사절단의 수행 장교인 클로드 드 포르뱅(Claude de Forbin)을 나라이 왕에게 당시 “왕국의 열쇠(la clef du Roïaume)”로 간주되었던 방콕의 방위대의 지휘관에 추천했다(Hutchinson 1985: 128).

그러나 시암 사회에는 나라이 왕 정부의 유럽에 대한 관계가 그토록 긴밀하게 전개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다. 파울콘이 당시 루이 14세의 고해신부로 프랑스 궁정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갖고 있던 라 쉘스(La Chaise) 신부에게 1686년 11월 20일 보낸 한 서신에 의하면, 1685년 2월에 한 왕자의 집안에 속한 어떤 남자가 법정에 나라이 왕 정부의 상황을 묘사하는 긴 글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탄원서에는 또한 “[불교의] 가르침의 적으로 묘사된 기독교 성직자들에 대한 상세한 고발과 기타 풍부한 비방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문서를 쓴 자가 뒤에 체포되었을 때, 그는 “국왕께서 불교의 적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잃으실 것이라는 한 불교승려의 예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한다(Phaulkon 1985: 228). 이 보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보수적 세력들, 특히 불교도 그룹 가운데 시암에서의 가톨릭 선교사들의 활동이 더욱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한 왕국의 대외정치적 전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시암의 전통을 염려하는 불교계의 반기독교적 자세는 한 익명의 편지가 왕국의 불교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사건이 발생한 1686년 3월 혹은 4월경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익명의 편지에 대해 파울콘은 상기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프랑스 사신이 [시암을] 떠난 지 3개월 혹은 4개월 후에 룽부리의 왕궁의 정문 앞에 서 있는 나무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종이를 발견한 자가 이것을 탄원서로 [당국에] 제출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는 불교신앙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묘사하면서 백성의 안녕에 관계되는 것에 모두 주목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Phaulkon 1985: 228-229).

나라이 왕은 이 익명의 편지를 외국인인 아닌 한 타이인(Thai)⁵⁾의

5) 이 글에서 ‘타이인(Thai)’은 시암 왕국 즉 태국의 다수민족을 이루는 ‘타이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의 종족(ethnic) 개념임. 그에 비해 ‘시암인(Siamese)’은 시암

소행으로 간주하여 조정의 대신들에게 자신의 정부에 대한 이러한 공개적인 비판에 가담하는 자는 엄중한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Phaulkon 1985: 229).

나라이 정부의 유럽에 대한 관계의 전개에 대해 당시 시암의 무슬림들도 불교도 못지않게 불만이였다. 그들은 특히 파울콘이 조작하는 시암 정부의 친유럽적인 대외무역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시암 정부의 관료이기도 한 시암의 무슬림 상인들은 왕국의 인도양 무역을 자신들의 손에서 빼앗아 유럽인들에게 넘겨준 파울콘의 반무슬림적 무역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La Loubère 1987: 367; Bèze 1968: 47).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파리외방선교회(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소속으로서 1664년 무렵부터 시암에서 활동하면서 시암 궁정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루이 라노(Louis Laneau) 신부가 작성한 한 서신에 의하면, 당시 왕권의 상징으로 간주되던 왕실의 흰코끼리 한 마리가 1686년 초에 밀림으로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백성들 사이에서 흉조로 간주되었으며, 심지어 조만간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돌기도 했다(Lano 1967: 214-215). 그러한 변란은 실제로 그 해 중엽에 일어났다. 방콕에서 아유타야까지의 왕국의 핵심 지역을 강타한, 많은 무슬림들이 가담한 ‘마카사르인 폭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2. 1686년 마카사르인 폭동의 전개

마카사르인 폭동은 프랑스의 가톨릭 신부들이 빈번하게 시암을

왕국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시 시암 사회에 어느 정도 동화된 라오(Lao)계, 크메르(Khmer)계, 몬(Mon)계, 말레이(Malay)계, 인도계, 중국계 그리고 기타 다양한 소수민족 출신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

방문하고 나라이 왕 통치 하의 시암과 루이 14세의 프랑스 간 외교 사절 교환이 활발하게 전개된 1680년대 중엽에 일어났다. 1686년 8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마카사르인 폭동에 대해서는 당대에 작성된 유럽인들의 다양한 기록들과 한 페르시아인의 보고가 있다. 이러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마카사르인 폭동은 음모, 방콕에서의 전투, 아유타야에서의 전투 등 세 국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1) 음모 국면

1686년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아유타야와 롭부리(Lopburi)에 체류한 EIC의 새뮤얼 화이트(Samuel White)는 런던에 있는 자신의 동생 조지(George)에게 보낸 1686년 9월 30일자⁶⁾ 편지에서 마카사르인 반란 음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지난 달 국왕 폐하가 조정 전부를 데리고 롭부리의 하궁(夏宮)에 행차하자, (너도 알다시피 포르투갈인 캠프 아래에 정착한) 마카사르인들은 [아유타야] 도시를 방화하고 왕궁을 점령하고 약탈하며 국왕을 죽이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다는 음모를 세웠다. 그러나 그 음모의 실행에 착수하려고 예정된 시점의 약 6시간 전에 겁먹은 몇몇 공모자들이 그 음모를 털어놓아 거사계획이 발각되었다. 발각이 늦게 이루어졌지만 음모의 시도를 막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여 [왕궁] 호위대가 경계 태세에 들어가 음모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국왕은 파울콘(추밀원의 의장)을 시암[즉 아유타야]의 왕궁으로 보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전모를] 파악하도록 했다. 그가 [아유타야에] 도착하자 약 200명에 달하는 한 무리가 왕의 자비를 바라고 투항했다. 그들은 롭부리

6) 서신은 원래 9월 20일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당시까지도 네덜란드와 독일의 프로테스탄트권과 영국 등에서 통용되던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한 것임. 이 날짜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9월 30일이 됨. 이후 이 글에서 1686년 마카사르 폭동에 관계된 율리우스력의 모든 날짜는 별도의 언급 없이 그레고리력으로 환산된 것임. Smithies(2002: 93, n. 20).

로 압송되었는데, 거기서 몇 명은 사형에 마땅한 유죄로 드러났다(Anderson 1981: 290 재인용).

이 사건은 1686년 9월 6일 아유타야에 온 영국인 에드먼드 유들(Edmund Udall)의 한 서신에 의하면 그가 시암의 수도에 도착하기 이미 1달 전에 일어났다(Records 1920: 120). 프랑스의 사신과 함께 1685년에 시암에 온 엔지니어인 라 마르(La Mare)는 마카사르인들의 폭동 거사가 8월 15일 밤 11시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기록한다(La Mare 2002: 75). 상기 세 명의 유럽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마카사르인 폭동의 첫 번째 국면인 음모와 그 음모의 발각과 시암 정부의 대응은 8월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⁷⁾

마카사르인 폭동의 음모 국면의 상황은 시암에서 활동하는 파리 외방선교회의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들의 한 보고서에서도 묘사되어 있다. 이 음모 사건이 발생한 지 대략 8개월 후에 작성된 이 문서에 따르면, 마카사르인 무리의 한 부두목은 시암에서 이슬람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암 정부를 겨냥한 음모를 꾸몄고 여기에 마카사르인 왕자를 포함한 동족들을 끌어들이었다. 음모는 왕궁을 약탈하고 나라이 왕을 살해한 다음 그의 동생을 왕위에 앉히고 그에게 이슬람 신앙을 강요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Khana Batluang 1967: 230-231).

1687년 10월에 아유타야에 도착하여 약 1년 시암에 체류한 프랑스인 클로드 드 베즈(Claude de Bèze) 신부는 나라이 왕의 동생을 왕위에 앉히려 했다는 음모의 소문이 당시 세간에 떠돌아 다녔다고 말한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나라이 왕의 다른 동생도 그 음모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라이 왕이 동생들의 음모 연루

7) Anderson(1981: 285-286)은 이 음모 사건을 1686년 7월 중순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Dhiravat na Pombejra(1984: 406)는 Anderson의 7월 중순의 시점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에 대한 여러 증언을 듣고 그들에게 태형을 내렸다고 한다(Bèze 1968: 58-59). 베즈 신부는 또 두 동생 중 나이가 더 많은 짜오파 아파이툿(Chaofa Aphaithot) 왕자가 말레이인들과 함께 국왕의 신변에 대한 반역적인 정보 수집을 한 혐의로 왕궁 내에 구금되었다고 쓴다(Bèze 1968: 52-53). 그러나 1687년 말에야 시암에 도착한 인물로서 마카사르인 폭동 음모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획득했을 베즈 신부의 서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만약 나라이의 두 동생이 국가 전복의 음모에 실제로 연루되었다면, 그들이 가택연금이나 태형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모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추측은 1670년 9월 여러 관료들과 불교승려들 그리고 국왕의 이복동생 중 한 명이 연루된 국가전복 음모가 발각되었을 때, 나라이 왕이 동생을 포함한 모든 혐의자들을 사형에 처했던 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Dhiravat na Pombejra 1984: 310).

프랑스 가톨릭 신부들의 기록들은 이브라힘의 기록과 비교될 수 있다. 페르시아 사절단의 공식 서기(書記)인 이브라힘은 마카사르인 폭동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폭동의 주동자가 계획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집들에 방화하여 그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할 동안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은 왕궁으로 가서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Ibrahim 1972: 136). 마카사르인 폭동이 일어난 당시 방콕에 있었던 포르벵도 마카사르인 폭동의 계획에 대해 페르시아인의 기록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폭동 음모의 주모자는 마카사르인 왕자로서, 그가 기도(企圖)한 것에 대해 포르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거칠고 야심만만한 마카사르인은 안식을 취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캄보디아와 플라카(“Malaga”)와 찰빠(“Chiampa”)의 왕자들과 음모를 꾸몄다. 그들의 계획은 [시암] 왕을 죽이고 왕국

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왕국을 자신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했다. 그들이 모두 무슬림인 까닭에 그들은 포르투갈인 및 일본인 기독교 신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멸살하기로 합의를 보았다(Forbin 1730: 154-155).

캄보디아, 므라카, 찰빠(Champa) 출신의 왕자들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오직 포르벵의 서술에서만 발견된다. 이 서술의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마카사르인 폭동 음모에 당시 시암에 살고 있던 찰빠 왕자들과 말레이인들을 포함한 무슬림들이 일부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마르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시암에는 찰빠 왕국의 왕자 세 명이 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나라이 왕의 궁정 무관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이 음모에 가담했다(La Mare 2002: 75). 말레이인들이 음모에 가담되어 있었다는 점은 파울콘이 1688년 1월에 바티칸의 교황 인노첸트(Innocent) 11세에게 보낸 다음의 서신에서 엿볼 수 있다.

마카사르인, 말레이인 그리고 다른 무슬림들이 [시암의] 국왕에게 대항하여 일으킨 반역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국왕이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는 불리하게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역은 국왕과 이 나라와 모든 기독교인 공동체를 큰 위협에 빠트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Hutchinson 1959: 79 재인용).

파울콘의 이 편지 그리고 앞에서 인용한 포르벵과 파리의방선교회의 프랑스 선교사들의 보고에서 드러나는 점은 1686년 8월에 일어난 마카사르인 폭동 음모가 특히 당시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으로 전개되었고 무엇보다도 파울콘에 의해 조종, 주도되고 있던 나라이 왕 정부의 대외관계에 대한 반발로 꾸며졌다는 것이다. 나라이 왕은 시암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던 유럽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며 많은 유럽인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었다. 당시 유럽인들은 무슬림들을 포함한 시암의 현지인들의 눈에 모두 기독교인으로 비치었다.

하지만 마카사르인들은 폭동 과정에서 반기독교적인 슬로건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내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추측은 루이라노 신부의 1686년 10월 30일자 서신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서신에서 그는 만약 폭동의 주동자가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진 발언을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시암의 타이인들이 폭동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대부분 반란 세력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말한다(Lano 1967: 216).

파리외방선교회 신부들의 보고에 따르면, 폭동 음모가 불발로 끝난 것은 음모에 가담한 시암 궁정의 한 관리가 거사의 시작을 앞두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부의 한 대신에게 음모를 누설했기 때문이었다. 라 마르에 의하면, 폭동 음모를 시암 정부에 알려준 이는 궁정 무관으로 있던 째왕자였으며, 그것을 듣고 대비책을 마련한 “대신”은 파울콘이었다. 그 대신은 아유타야 왕국의 경비태세를 강화했으며,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음모에 대해 보고받은 나라이 왕도 록부리의 궁전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사이 록부리에서 아유타야로 내려간 파울콘은 음모 주동자들 중 한 명을 체포하여 록부리의 나라이 왕에게 압송했다(Khana Batluang 1967: 231-233; La Mare 2002: 76).

(2) 방콕에서의 전투

8월의 마카사르인 폭동의 음모가 좌절되었지만,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국면의 위기가 끝난 후 시암 왕국은 마카사르인들로 인한 또 다른, 이번에는 직접적인 위협을 겪었다. 대략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일어난 마카사르인 폭동의 이 두 번째 국면은

방콕과 그 일대에서 한 무리의 마카사르인들과 시암 정부군 병사들 사이에 벌어진 유혈 충돌이 그 내용을 이루었다.

파리외방선교회 가톨릭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록부리로 압송된 자 외에 또 다른 마카사르인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파울콘에게 체포되기를 거부하면서 대신 자신이 약 50명의 다른 마카사르인들과 함께 시암을 떠나겠으니 이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Khana Batluang 1967: 233). 포르벵에 의하면, 이 마카사르인은 “마카사르인들의 섬에서 시암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온 한 범선의 선장”으로서, 8월의 음모에 가담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술라웨시 섬으로 되돌아가려고 작정했다(Forbin 1730: 158). 이 마카사르인의 정체와 그의 무리의 행동에 대해 상기의 새뮤얼 화이트도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그에 의하면, “50명에 달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계획적이고 대담한 한 동족을 자신들의 대장으로 삼았다. 그들은 음모에 대해 완전히 모른 채하면서 자신들을 신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들 소유의 선박 한 척을 타고 왕국을 떠날 자유를 [시암 당국에] 진지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 마카사르인 우두머리 역시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Anderson 1981: 290).

이상 인용된 세 개의 보고에서 약 50명의 마카사르인들이 사태 발생의 얼마 전에 무역을 하기 위해 아유타야에 왔으며, 그들의 선장이 마카사르인 폭동 음모에 처음부터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서둘러 시암을 떠나기 위해 시암 당국에 출항 허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울콘은 그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통행증을 발부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동시에 방콕의 태수이자 방콕 요새의 지휘관인 포르벵에게 강을 쇄사슬로 차단하고 54명에 달하는 마카사르인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Forbin 1730: 159-160).⁸⁾ 새뮤얼 화이트에 의하면, 파

올콘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그들의 폭동 음모 가담에 대한 혐의 외에도 그들이 방콕 하구와 나루를 매일 오가는 작은 상선들을 공격하여 시암 왕국의 무역에 큰 피해를 끼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Anderson 1981: 290).

포르벵은 파울콘의 지령을 받은 지 20일이 지나자 마카사르인들을 태운 범선이 방콕에 도착했다고 쓴다(Forbin 1730: 161). 그들이 도착한 바로 그 날 유혈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포르벵은 그 목격자로서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들의 도주로가 차단된 것을 알게 된 마카사르인들은 크리스(kris)를 쥐고 시암 군대로 돌진했다. 시암 군대는 2,000명의 타이인들과 80명의 포르투갈계 혼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Forbin 1730: 139-140, 160-161).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급하게 소집되어 전투 경험이 없는 타이인 군인들은 생사를 건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첫 날 전투에 많은 타이인 병사들과 관리들 그리고 포르투갈인 용병들이 마카사르인들에게 살해되었다. 마카사르인들은 방콕 부근의 마을들로 들어가 심지어 마을주민들과 불교승려들까지도 죽였다. 하루만에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366명에 달했다. 그러나 죽은 마카사르인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살아남은 24명 내지는 25명의 마카사르인들은 포르벵과 그의 소총부대에 추격당한 끝에 모두 죽었다(Forbin 1730: 162-187; Khana Batluang 1967: 233-234; Anderson 1981: 291-292).

(3) 아유타야에서의 전투

마카사르인들로 인한 세 번째 위기 국면은 아유타야에 있는 그들의 정착촌에서 9월 말에 일어났다. 에드먼드 유들의 상기 서신

8)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는 새뮤얼 화이트의 상기 서신(Anderson 1981: 290-291)과 파리의외방선교회 신부들의 보고(Khana Batluang 1967: 233-234)에서도 발견된다.

(Records 1920: 120)에 의하면, 약 70명의 마카사르인들이 그들의 캠프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이 사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는 새뮤얼 화이트에 의하면, 캠프에 있던 마카사르인들의 숫자는 약 100명이었으며, 한 마카사르인 왕자가 그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나라이 왕은 룽부리에서 아유타야로 돌아온 뒤 9월 중순쯤으로 보이는 시점에 마카사르인들에게 자신들의 크리스와 창을 내려 놓는 즉 항복하는 조건 하에 사면을 베풀겠다고 제의했다. 화이트는 나라이 왕이 이 제의를 한 것은 “이 음모에 단순한 정도 이상으로 연관된 모든 사악한 시암인들을 색출해 내려는” 저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Anderson 1981: 292-293). 만약 이 추측이 옳다면, 이 점은 당시 시암 정부에 나라이 왕의 국정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관료가 다수 있었다는 것을 재차 시사한다.

마카사르인 왕자는 9월 20일 무렵 나라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후 전투의 결의를 드러냈다(Anderson 1981: 293).⁹⁾ 그는 마카사르인들이 방콕에서 맞은 최후에 대해 알게 된 후 아유타야에 있는 자신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라이 왕은 대신들과 파울콘에게 마카사르인들을 멸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공격 날짜는 9월 24일로 확정되었다. 이 작전을 위해 큰 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그 숫자에 대해 이브라힘은 대략 3-4,000명(Ibrahim 1972: 137), 유들은 최소 15,000명(Records 1920: 121), 포르뱅은 심지어 2만 명이라고 말한다(Forbin 1730: 187). 그러나 7-8,000명이었다고 말하는 화이트의 서술이 가장 그럴 듯한 것으로 보인다(Anderson 1981: 295).

9) 마카사르인 왕자가 저항 의지를 드러낸 날짜와 관련하여 에드먼드 유들(Records 1920: 120)은 마카사르인들이 “9월 13일” 즉 9월 23일에 시암 왕에게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고 쓴다. 그러나 마카사르인 왕자가 시암 왕에게 시암 군대의 마카사르인들에 대한 9월 24일의 공격 “여러 날” 전에 전투의 결의를 전달했다고 말하는 페르시아인 이브라힘(Ibrahim 1972: 136-138)의 서술을 고려할 때, 화이트가 제시한 날짜가 보다 사실에 근사하지 않나 싶다.

시암 정부군 병력은 우선 작전 계획에 따라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에 마카사르인 캠프를 포위했다. 포위 작전에는 약 200척의 범선과 보트가 투입되었는데, 그것은 마카사르인들의 강을 통한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위 작전에는 파울콘을 포함한 약 60명의 유럽인들도 참가했다(Anderson 1981: 294). 파리의방선교회 선교사들의 보고(Khana Batluang 1967: 234-235)와 포르뱅의 기록(Forbin 1730: 187)에 의하면, 파울콘이 작전을 수립하고 지휘했다. 24일 아침 우선 범선들이 마카사르인 캠프를 포격한 다음, 범선의 정부군 병력이 상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여러 명의 유럽인과 술한 시암인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Anderson 1981: 294-295). 포르뱅에 의하면, 마카사르인들에게 살해된 유럽인은 17명이었고, 시암인은 그 숫자가 1,000명 이상이었다(Forbin 1730: 188).

전투는 오후 3시쯤 끝났다. 왕자를 포함한 마카사르인들의 대부분은 죽었으며, 나머지는 생포되었다. 생포된 자들 중에는 마카사르인 왕자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뒤에 1685년 프랑스 사신을 따라 시암에 온 기 타샤(Guy Tachard) 예수회 신부가 1686년 말에 프랑스로 갈 때 함께 데리고 갔다(Forbin 1730: 189-190; Anderson 1981: 296).¹⁰⁾ 나머지 생포된 자들은 나중에 모두 잔인하게 처형되었다(Véret 1935: 351).

10) 화이트는 마카사르인 왕자의 아들에 대해 “약 12세의 소년” 한 명에 대해서만 말한다(Anderson 1981: 296). 1690년경 시암을 방문한 독일인 엥겔베르트 캠퍼(Kaempfer 1987: 36) 역시 한 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에 비해 파울콘(Fonkhon 1968: 36)과 프랑스동인도회사의 요원으로 1680년대 중엽 아유타야에서 활동한 베레(Were 1968: 282-283)의 기록에 의하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IV. 결론

나라이 왕의 시대는 아유타야 왕조사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이 시기 시암 왕국과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 사이에 광범위하고 긴밀한 접촉이 일어났으며, 이에 수반하여 가톨릭교회가 시암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특히 프랑스는 시암을 동아시아에서의 무역을 위한 기지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나라이 정부의 친유럽적 정책 특히 친프랑스적 접근 그리고 이에 부응하여 시암에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진출하고 이를 위해 심지어 군대를 시암으로 파견한 프랑스의 저돌적인 접근은 시암의 관료사회와 불교를 믿는 백성들 사이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암 사회의 반발은 당시 관료사회에서 파울콘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불교계와 일반 백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던 팻타라차가 주도한 1688년 궁정혁명으로 나타났다(Cho Hung-Guk 1994: 95-97).

이 연구는 1688년 혁명에 2년 앞서 일어난 마카사르인들의 폭동을 다룬 것으로, 이 사건 역시 나라이 정부의 친유럽적 및 가톨릭 우호적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1688년의 혁명이 성공하여 나라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팻타라차 정권을 탄생시킨 반면, 마카사르인 폭동은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은 1686년 8-9월 시점 나라이 왕이 국가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측면 외에도 두 사건에 대한 시암 사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차이를 간략히 말하자면, 1688년 혁명은 시암 사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1686년의 마카사르인 폭동은 시암 사회가 동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협시켰다는 것이다. 마카사르인 폭동의 경우 시암 사회의 그러한 시각 및 태도의 원인은 그 사건의 주체가 시암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교도 타이인이 아니라 슬라웨시 섬 출신의 마카사르인들이 주축이 된 무슬림이었

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당시 시암 사회가 불교를 왕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왕국의 수호자로서의 국왕과 그 왕권이 본질적으로 불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시암 사회가 해외무역을 중시하여 무슬림들과 기독교적인 유럽인들을 아유타야 왕국에 유치하고 시암 사회에서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용인했지만 그들이 시암의 문화적 전통과 그 전통의 수호자인 왕권의 불교적인 문화적 본질을 위협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제어: 나라이 왕, 마카사르 폭동, 파울콘, 1688년 혁명, 아유타야

<참고문헌>

1. 중국어·일본어·태국어 문헌

明史. 1977. 北京: 中華書局.

郡司喜一. 1938. 『徳川時代の日暹國交』 東京: 東亞經濟調査局.

Chomrom Saisakun Bunnak. ed. 1999. *Sakun bunnak*. [분낙 가문].
Krung Thep: Thai Watthanaphanit.

Khana Batluang. 1967. “Wa duai phuak khaek makasa pen kabot.”
[반역적인 마카사르인들에 대해]. *Prachum Phongsawadan*.
Lem 20.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Lano(Louis Laneau). 1967. “Chotmai mongsenyoe lano thueng phu
amnuai kan khana tang prathet (October 30, 1686).” [외무부장
관에게 보내는 라노 신부의 편지]. *Prachum Phongsawadan*.

- Lem 20.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 Fonkhon(Phaulkon). 1968. "Chotmai (November 26, 1686)." *Prachum Phongsawadan*. Lem 26.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 Phonnarat, Somdet Phra. 1971.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프라첻뚜폰 사원의 승려 폰나랏 본 아유타야 왕실연대기]. Krung Thep: Khlang Witthaya.
- Prasoet Aksonnit, Luang. 1961.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prasoet aksonnit* [루앙 뿌라삿 악손닛 본 아유타야 왕실연대기].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prasoet aksonnit lae chabap phra paramanuchit lae phongsawadan nua chabap phra wichian pricha (noi) lem 1*.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 Prayut Sitthiphan. 1962. *Ton trakun khunnang thai* [태국 쿤낭 가문들의 기원]. Krung Thep: Krung Thon.
- Wannao Yuden. 1984. *Prawat wannakhadi samai sukhothai lae ayutthaya* [수코타이 시대와 아유타야 시대 문학의 역사]. Krung Thep: Thai Watthanaphanit.
- Were(Véret). 1968. "Chotmai mongsia were (August 22, 1687)." [베레 신부의 편지]. *Prachum Phongsawadan*. Lem 25. Krung Thep: Ongkankha Khong Khurusapha.

2. 유럽어 문헌

- Anderson, John. 1981. *English Intercourse with Siam in the Seventeenth*

- Century*. Bangkok: Chalermnit Bookshop.
- Aubin, Jean. 1980. "Les persans au Siam sous le règne de Narai (1656-1688)." *Mare Luso-Indicum* 4: 95-126.
- Bèze, Claude de. 1968. "The Memoir of Father de Bèze, s. j." E. W. Hutchinson. *1688 Revolution in Siam*. Hong Kong: Hongkong University Press.
- Bouvet, Père. 1963. *Voyage de Siam*. J. C. Gatty. *Voyage de Siam du Père Bouvet*. Leiden.
- Campos, Joaquim de. 1940. "Early Portuguese Accounts of Thailand." *Journal of Thailand Research Society* 32: 1-27.
- Cho Hung-Guk. 1994. *Die politische Geschichte Thailands unter der Herrschaft König Narais (r. 1656-1688)*. Seoul: Munduksa.
- Cho Hung-guk. 2012. "The Siamese Reactions to the French Influences and the 1688 Palace Revolu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Narai (1656-1688)." 『동남아연구』 22(2): 245-276.
- Dhiravat na Pombejra. 1984. "A Political History of Siam under the Prasatthong Dynasty 1629-1688."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Dunn, Malcolm. 1984. *Kampf um Malakka: Eine wirtschaftsgeschichtliche Studie über den portugiesischen und niederländischen Kolonialismus in Südostasien*.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 Forbin, Claude de. 1730. *Memoires du Comte de Forbin, Chef d'Escadre, chevalier de l'ordre militaire de Saint Louis*. 2 Tomes. Amsterdam (Aux depens de la Compagnie).
- Gervaise, Nicolas. 1688. *Histoire naturelle et politique du Royaume de Siam*. Paris.
- Harvey, G. E. 1967. *History of Burma: From the Earliest Times to*

- 10 March 1824 The Beginning of the English Conquest*. New York: Octagon Books.
- Hutchinson, E. W. 1959. "The French Foreign Mission in Siam during the XVIIth Century." *Selected Articles from th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ume VIII Relationship with France, England and Denmark*. Bangkok: The Siam Society.
- Hutchinson, E. W. 1985. *Adventurers in Si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Bangkok: DD Books.
- Ibrahim, ibn Muhammad. 1972. *The Ship of Sulaiman*. Translated from the Persian by J. O'Kan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aempfer, Engelbert. 1987.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1690*. Translated by J. G. Scheuchzer. Bangkok: White Orchid.
- La Loubère, Simon de. 1987. *Du royaume de Siam*. Michel Jacq-Hergoualc'h. *Étude historique et critique du livre de Simon de La Loubère <Du Royaume de Siam> - Paris 1691*.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 La Mare. 2002. "La Mare's Account." Michael Smithies. "Accounts of the Makassar Revolt, 1686." *Th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90(1 · 2): 73-100.
- Penth, Hans Georg. 1969. "Zum Verhältnis Sayam-Atjeh im 17. Jahrhundert." *Journal of the Siam Society* 57(2): 355-359.
- Phaulkon, Constantine. 1985. "Letter to Père de La Chaise (November 20, 1686)." E. W. Hutchinson. *Adventurers in Si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Bangkok: DD Books.
- Pinto, Fernão Mendes. 1987. *Merkwürdige Reisen im fernsten Asien 1537-1558*. Stuttgart: Thienemann.
- Records. 1916.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Volume II. 1634-1680.
Bangkok: Council of the Vajirañāṇa National Library.
- Records. 1918.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Volume III. 1681-1685.
Bangkok: Council of the Vajirañāṇa National Library.
- Records. 1920.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Volume IV. 1686-1687.
Bangkok: Council of the Vajirañāṇa National Library.
- Reid, Anthony. 1993.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Expansion and Crisi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Sarasin Viraphol. 1977. *Tribute and Profit: Sino-Siamese Trade 1652-1853*.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 Smith, George Vinal. 1977. *The Dutch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Dekalb: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Smithies, Michael. 2002. "Accounts of the Makassar Revolt, 1686." *Th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90(1 · 2): 73-100.
- Spinks, Charles Nelson. 1959. "Siam and the Pottery Trade of Asia." *Selected Articles from the Siam Society Journal*. Volume III. Bangkok: The Siam Society: 247-315.
- Sutherland, Heather. 2001. "The Makassar Malays: Adaptation and Identity, c.1660- 1790."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2(3): 397-421.
- Suwannthat-Pian Kobkua. 1988. *Thai-Malay Relations: Traditional Intra-regional Relation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chard, Guy. 1688. *Voyage de Siam des Peres Jesuites (1685-1686), Envoyés par le Roy, aux Indes à la Chine, Avec leurs Observations Astronomiques, & leurs Remarques de Physique, de Géographie, d'Hydrographie, & d'Histoire*. Paris: Pierre Mortier.
- Turpin, Françoise Henri. 1908. *History of the Kingdom of Siam*. Translated by B. O. Cartwright. Bangkok: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 Van Vliet, Jeremias. 1975. *The Short History of the Kings of Siam*. Translated by Leonard Andaya and edited by David K. Wyatt. Bangkok: The Siam Society.
- Véret. 1935. "Lettre de Véret à Deslandes (March 3, 1689)." Robert Lingat. "Une lettre de Véret sur la Révolution Siamoise de 1688." *T'oung Pao Archives* 31: 343-362.
- Wyatt, David K. 1974. "A Persian Mission to Siam in the Reign of King Narai. A Book Review of 'ibn Muhammad Ibrahim, The Ship of Sulaiman, trans. from the Persian by John O'Kane'." *Th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62(1): 151-157.

(2013. 03. 14. 투고; 2013. 05. 17. 심사; 2013. 06. 03.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f the Muslim Society and the Makassar Revolt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ailand

CHO Hunggu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ro-European policy of the Siamese government of King Narai in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and the aggressive approach of France which, meeting the Siamese foreign policy, commercially as well as religiously advanced into Siam and even sent a military unit to this kingdom, gave rise to a strong antipathy and opposition among the Siamese bureaucracy and the Buddhist population. The antipathy of the Siamese society manifested in the 1688 Palace Revolution led by Phettharacha who was backed by the confidence of the Buddhist population and a large part of the bureaucracy.

The revolt of the Makassarese during August and September in 1686 occurred also as an opposition to the pro-European and Catholic-friendly policy of the Narai court. The Makassar revolt ended, however, in failure, while the revolution in 1688 was successful, bringing forth a new regime of the so-called Ban Phlu Luang dynasty. A plain and obvious reason of the failure was that King Narai was still maintaining a strong control over

the court and the population. Another important reason seems to lie in the difference of attitude of the Siamese society toward the two events. To put it simply, while the Siamese society gave support to the 1688 revolution, it did not sympathize with the Makassar revolt and even regarded it as dangerous. The reasons of such a point of view and attitude toward the Makassar revolt might have been that the actors of the event were not the Buddhist Thai who constituted the main group of the Siamese population, but Makassar Muslims from Sulawesi, Indonesia.

This study shows that the Siamese society then regarded Buddhism as the cultural fundament of the Siamese kingdom, with the king and the kingship being essentially Buddhist. Although the Siamese society, which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overseas trade, attracted Muslims and Christian Europeans into the kingdom, allowing them relatively free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y, it did not look on unconcernedly when they threatened the Siamese cultural tradition and the Buddhist cultural essence of the Siamese kingship, the protector of that tradition.

Key Words: King Narai, Makassar Revolt, Phaulkon, the 1688 Revolution, Ayutthaya

